

# 제 ① 교시 국 어

1. 영수가 지민에게 말하는 의도로 적절한 것은?

영수: 지민아, 창문 좀 닫아 주겠니?  
 지민: 응, 알았어.

- ① 감사      ② 설명      ③ 요청      ④ 위로

2. 토론에서 사회자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론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진행한다.
- ② 토론에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을 내세운다.
- ③ 토론의 논제를 제시하고 토론 순서를 안내한다.
- ④ 토론자들의 발언을 요약하거나 보충 질문을 한다.

3. 보고서를 작성할 때 지켜야 할 쓰기 윤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용한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힌다.
- ② 조사 결과는 필요에 따라 과장할 수 있다.
- ③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 ④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수정해서 사용한다.

4. 다음 개요에서 ㉠의 세부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목: 우리 고장 △△를 알립니다	
처음	△△의 위치
중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 유형 문화재 ..... ㉠</li> <li>• △△의 축제</li> <li>• △△의 음식</li> </ul>
끝	△△로 오는 길 및 관련 홈페이지 소개

- ① △△의 인구 분포
- ② △△의 농산물 축제
- ③ △△의 기온과 강수량
- ④ △△의 궁궐 터와 석탑

5. 높임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할아버지께서는 여행을 다녀오셨다.
- ② 어머니께서 내게 심부름을 시키셨다.
- ③ 나는 아버지께 우편물을 가져다 드렸다.
- ④ 누나는 할머니를 데리고 공원에 가셨다.

6. 다음의 음운 변동 현상이 나타나는 낱말은?

음운의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 소리 나는 현상

- ① 같이      ② 밥물      ③ 좋다      ④ 칼날

7. ㉠에 해당하는 언어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약속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어 쓸 수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지우개'를 '타타하'라고 부르겠다고 정하고, 사람들에게 "타타하 좀 빌려 줘."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타타하'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 ① 자의성      ② 사회성      ③ 역사성      ④ 창조성

8.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 한다. 이런 까닭으로 글을 모르는 백성이 많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 「훈민정음(訓民正音) 언해본」 -

- ① 새 글자는 한자의 모양을 참고하여 만들어야 한다.
- ② 글자를 몰라도 백성들이 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 ③ 누구나 새 글자를 쉽게 익혀 편하게 사용해야 한다.
- ④ 새 글자를 만드는 것은 외국과 소통하기 위해서이다.

9. 다음 단어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구름      나무      물

- ①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낸다.
- ②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 ③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 ④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낸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눈밭이라면  
 허공에서 쭉쭉 휘날리는  
 ㉠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밭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 편지가 되고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 새살이 되자

- 안도현, 「우리가 눈밭이라면」 -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직유법을 활용하고 있다.
- ②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 ③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고 있다.
- ④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다.

11. 윗글에서 화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는?

- ① 남의 의견에 흔들리지 말자.
- ②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살자.
- ③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자.
- ④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자.

12. ㉠~㉣ 중 함축적인 의미가 다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대인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집계를 할끔할끔 돌아보더니 ㉠ 행주치마의 속으로 꺾던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쭉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뿜 끼치는 굵은 ㉡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였다.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로 쭉 밀어 버렸다.

[A]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췌근췌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걸 또 뭐야 싶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흉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 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눈독으로 헹하게<sup>1)</sup> 달아나는 것이다.

어쩌다 동리 어른이  
 “너, 얼른 ㉢ 시집을 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려 마세유. 갈 때 되면 어렵히 갈라구…….”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러움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열병이<sup>2)</sup>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 때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북북 쓰는 것이다.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sup>3)</sup>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sup>4)</sup>를 얻어 ㉣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질거린다.

- 김유정, 「동백꽃」 -

- 1) 헹하게: 지체하지 않고 매우 빠르게.
- 2) 열병이: 열간이. 뒹뒹이가 똑똑하지 못하고 모자라는 사람.
- 3) 마름: 땅주인을 대신하여 땅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 4) 배재: 여기서는 땅을 빌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

1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② 향토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 ③ 1인칭 ‘나’를 서술자로 설정하였다.
- ④ 인물의 외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14. ㉠~㉣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소재는?

○ 갈등의 매개체로 쓰였다.  
 ○ ‘나’에 대한 ‘점순’의 관심을 상징한다.

- ① ㉠                      ② ㉡                      ③ ㉢                      ④ ㉣

15. [A]에서 알 수 있는 ‘점순’의 마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속상함              ② 당황함              ③ 후련함              ④ 무안함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골대가 모든 장졸을 뒤로 물린 후, 왕비와 세자, 대군을 모시고 장안의 재물과 미녀를 거두어 돌아갈 채비를 꾸렸다. 오랑캐에게 잡혀가는 사람들의 슬픈 울음소리가 장안을 진동했다.

㉠ 박씨가 계화를 시켜 용골대에게 소리쳤다.

“무지한 오랑캐 놈들아! 내 말을 들어라. 조선의 운수가 사나워 은혜도 모르는 너희에게 패배를 당했지만, 왕비는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런 뜻을 둔다면 내 너희를 몰살할 것이니 당장 왕비를 모셔 오너라.”

하지만 용골대는 오히려 코웃음을 날렸다.

“참으로 가소롭구나. 우리는 이미 조선 왕의 항서를 받았다.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는 우리 뜻에 달린 일이니,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마라.”

오히려 욕설만 무수히 퍼붓고 듣지 않자 계화가 다시 소리쳤다.

“너희의 뜻이 진실로 그러하다면 이제 ㉡ 내 재주를 한 번 더 보여 주겠다.”

계화가 주문을 외자 문득 공중에서 두 줄기 무지개가 일어나며 모진 비가 천지를 뒤덮을 듯 쏟아졌다. 뒤이어 얼음이 얼고 그 위로는 흰 눈이 날리니, 오랑캐 군사들의 말발굽이 땅에 붙어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게 되었다. 그제야 용골대는 사태가 예사롭지 않음을 깨달았다.

“당초 우리 왕비께서 분부하시기를 장안에 ㉢ 신인(神人)이 있을 것이니 이시백의 후원을 범치 말라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지금이라도 부인에게 빌어 무사히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용골대가 갑옷을 벗고 창칼을 버린 뒤 무릎을 꿇고 애걸하였다.

“소장이 천하를 두루 다니다 조선까지 나왔지만, 지금까지 무릎을 꿇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 부인 앞에 무릎을 꿇어 비나이다. 부인의 명대로 왕비는 모셔 가지 않을 것이니, 부디 길을 열어 무사히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무수히 애원하자 그제야 박씨가 말을 걷고 나왔다.

- 작자 미상, 「박씨전」 -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다.
- ②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상이 드러나 있다.
- ③ 조선이 승리했던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17.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박씨’는 조선 왕의 항서를 돌려받았다.
- ② ‘용골대’는 ‘박씨’에게 무릎을 꿇고 애걸하였다.
- ③ ‘계화’는 도술을 부려 오랑캐 군사를 제압하였다.
- ④ ‘용골대’는 조선의 왕비를 모셔 갈 수 없게 되었다.

18. ㉠~㉣ 중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 13의 줄거리] 옥림이와 아빠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운동 경기에서의 규칙과 일상생활에서 양심을 지키며 사는 일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눈다. 옥림이는 경우에 따라 반칙이나 비양심적인 행동도 해도 된다고 말한다. 옥림이의 말을 들은 아빠는 옥림이가 주운 8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파출소에 가져다 주기로 결심한다.

S# 14 파출소 앞 거리(밤)

옥림이의 팔을 붙잡고 어디론가 끌고 가는 아빠의 모습.

옥림: (어리둥절해하며) 왜 이래, 아빠 어디 가는 건데?

아빠, 파출소 앞에 탁 멈춰 선다.

아빠: (지갑을 꺼내 보이며) 이거, 그때 네가 주운 지갑이야.

㉠ 솔직히 아빠도 이거 갖다 줄까 말까 갈등했는데, 네 얘기 들으니깐 안 되겠어. 왜 그런지 알아?

옥림: (똥해서 본다.)

아빠: 너 몇 살이야? 열다섯 살밖에 안 됐지? 그런 애가 만날 세상 탓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도둑질하면 너도 도둑 될래?

옥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아빠: 세상이 뭐냐, 그건 만들어 가는 거야. 아빠가 지금 지갑 갖다 주지? 그러면 이 지갑 받은 사람이 감동받지?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돈 주워서 또 파출소 갖다 주고, 그걸 들고 돌아서 세상이 깨끗해질 수도 있는 거라고!

옥림: 그렇게 아빠 돈도 돌아온다고? 150만 원이?

아빠: (멈칫하다가 결연하게) 어! 그럴 거야. 아빠는 그렇게 믿어. 봐라, 이건 이제 지갑이 아니라 부메랑이야. 들고 돌아서 오는 부메랑! 봐라? 아빠, 이거 갖다 준다? 부메랑 주고 온다?

썩썩하게 파출소로 들어가서 경찰관에게 의기양양 턱 지갑을 내미는 아빠의 모습을 바라보는 옥림이.

- 홍자람, 「챔피언」 -

1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식이 자유로운 글이다.
- ②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이다.
- ③ 인물의 갈등이 드러나 있다.
- ④ 대화와 지시문으로 표현한다.

20. ‘아빠’가 ㉠과 같이 말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운 물건을 신고하고 보상 받기 위해서
- ② ‘옥림’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 ③ 주인이 지갑을 찾는다는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 ④ ‘옥림’이 ‘아빠’를 비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냉장고를 사용하면 전기를 낭비하게 된다. 언제 먹을지 모를 음식을 보관하는 데 필요 이상으로 전기를 쓰게 되는 것이다. 전기를 낭비한다는 것은 전기를 만드는데 쓰이는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냉장고를 쓰면서 인정을 잃어 간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식구가 먹고 남은 정도의 음식을 만들거나 얻게 되면 미련 없이 이웃과 나누어 먹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남겨 두면 음식이 상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냉장고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 이유가 사라지게 되고, 이에 따라 이웃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이 줄어들게 되었다. 냉장고에 넣어 두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오랫동안 상하지 않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냉장고는 점점 커지고, 그 안에 넣어 두는 음식은 하나둘씩 늘어난다.

또한 냉장고는 당장 소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사게 한다. 그리하여 애꿎은 생명을 필요 이상으로 죽게 만들어서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짐승이나 물고기 등을 마구 잡고, 당장 죽이지 않아도 될 수많은 가축을 죽여 냉장고 안에 보관하게 한다. 대부분의 가정집 냉장고에는 양의 차이는 있지만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생선, 멸치, 포 등이 쌓여 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따져 보면 엄청난 양이 될 것이다. 우리는 냉장고를 사용함으로써 애꿎은 생명들을 필요 이상으로 죽여 냉동하는 만행을 습관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            ㉠            ) 냉장고가 커질수록 먹지 않는 음식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가까운 전기를 써서 냉동실에 오랫동안 보관한 음식들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기 일쑤다. 이런 현상은 잘사는 나라뿐 아니라 남태평양이나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 박정훈, 「냉장고의 이중성」 -

21. 윗글을 요약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필요한 정보를 더 찾아본다.
- ② 핵심어와 중심 문장을 찾는다.
- ③ 낱말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다.
- ④ 인물의 대화를 중심으로 요약한다.

2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냉장고 사용으로 전기가 낭비되고 있다.
- ② 냉장고는 당장 불필요한 것들을 사게 한다.
- ③ 냉장고는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④ 냉장고를 쓰면서 이웃과 음식을 나누는 일이 줄었다.

23. ㉠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냉장고로 인해 화재의 위험이 늘어났다.
- ② 냉장고를 사용하면서 많은 음식을 버리게 되었다.
- ③ 냉장고의 사용은 아동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 ④ 냉장고는 사람에게 필요 이상의 열량을 섭취하게 한다.

[24~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의 손가락과 손바닥, 발바닥 등에는 작은 산과 계곡 모양의 선들로 이루어진 무늬가 있다. 이러한 피부의 무늬는 무늬가 있는 위치에 따라 손가락에 있는 지문(指紋), 손바닥에 있는 장문(掌紋), 발바닥에 있는 족문(足紋)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지문은 손가락 안쪽 끝에 있는 피부의 무늬나 그것이 남긴 흔적을 말한다.

지문은 태아가 4~6개월째에 접어들면서 만들어지는데, 그 형태는 대개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엄마 뱃속에서의 태아의 위치나 태아가 받는 압력 등도 지문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유전자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조차 지문이 서로 다르다.

두 사람의 손가락에 있는 지문이 일치할 수 있는 확률은 억지로 계산해도 640억분의 1 정도라고 하니, 전 세계에서 지문이 같은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한 사람의 왼손과 오른손의 지문도 다르다. 지문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최근에는 범죄 수사나 신분 확인을 위한 보안 기술에 지문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략)

지금까지 지문에 대해 알아보았다. 인류가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이유 중의 하나는 손을 섬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의 손이 가진 특별한 기능을 이해하려면 지문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지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손이 가진 섬세한 기능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 김형자, 「지문이 촉각을 위해 존재한다고?」 -

2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사람의 손바닥에는 선들로 이루어진 무늬가 있다.
- ② 지문은 신분 확인을 위한 보안 기술에 활용되고 있다.
- ③ 손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지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④ 유전자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는 지문이 같은 경우가 많다.

25. ㉠에 사용된 설명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정의            ② 예시            ③ 비교            ④ 대조